

국민행동요령

실내대피



1.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내에서 대기



2.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 밀봉



3. 화학물질 폭발에 대비하여 창문으로부터
떨어져서 대피



4.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 상황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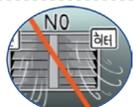


5. 외부공기가 통하는 설비(에어컨, 히터,
환풍기) 작동 중단

차량대피



1. 사고지역 통과 시 창문을 닫고 공기 순환은
내부순환으로 전환



2.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에어컨,
히터 작동 중단



3. 유류, 인화성액체 유출사고 시 차량운행 중지



4. 소방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동



5. 물수건, 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 노출 방지

국민행동요령

복귀 후



1. 복귀 후에는 즉시 환기



2. 사고지역의 노출된 식수나 음식물 섭취 금지,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3.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 후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진료



4. 증이상 없어도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다면,
입고 있던 옷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련기관

지역별	기관명	주관연락처
경기	시흥 안산	시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031)470-2466
	그외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4-2851 031)790-2590
서울		

• 유해화학물질 관련업무

- 유해화학물질 신규허가
-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불이행 조치
- 어린이용품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신고 119

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유해화학물질 사고



유해화학물질 알아보기

유해화학물질이란?

-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 물질

*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 등 해로운 성질

** 노출 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확인하기

유해화학물질 현황과 위험성

- 우리나라에서는 4만 여종의 화학물질 사용
(유독물질 540종, 특정 유독물 112종, 취급제한 특정 유독물 54종)
- 유해, 위험 물질은 전체의 70% 이상으로 추정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현황

- 제주 92
- 세종 143
- 대전 285
- 광주 302
- 강원 310
- 서울 545
- 전북 823
- 대구 838
- 울산 938
- 부산 985
- 전남 1014
- 경남 1180
- 경북 1227
- 충북 1229
- 충남 1375
- 인천 1506
- 경기 4752



사고사례 및 통계

경기도 파주 사업장 누출사고

일시	'21년 1월 13일 14:20경
피해현황	사망 2명, 부상 3명
사건개요	공장 내 배관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누출



경북 구미 사업장 누출사고

일시	'12년 9월 27일 16시경
피해현황	사망 5명
사건개요	불산을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누출



사고발생 통계(2014.01.08. ~ 2022.12.26.)



사고원인

구분	안전기준 미준수	시설결함	운송차량	자연재해
전국	300건	281건	154건	8건
경기	98건	71건	36건	0건

사고형태

구분	누출	화재	폭발	기타
전국	590건	49건	61건	43건
경기	158건	15건	16건	16건

국민행동요령

화학사고 발견 시



1.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폭발음, 냄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



2. 사고위치, 냄새,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3. 현장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



4. 방독면 착용 또는 물수건(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 노출 막기

실외대피



1. 사고발생 지역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



2. 사고발생 지역에서 나의 위치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직각 방향으로 대피



3. 고층건물 또는 높은 곳으로 대피
※ 대부분 화학물질이 지면을 타고 확산



4. 방송, 휴대폰 등을 통해 외부 상황 파악



5. 외부 대피가 필요한 경우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문을 닫고, 전기와 가스 끄기